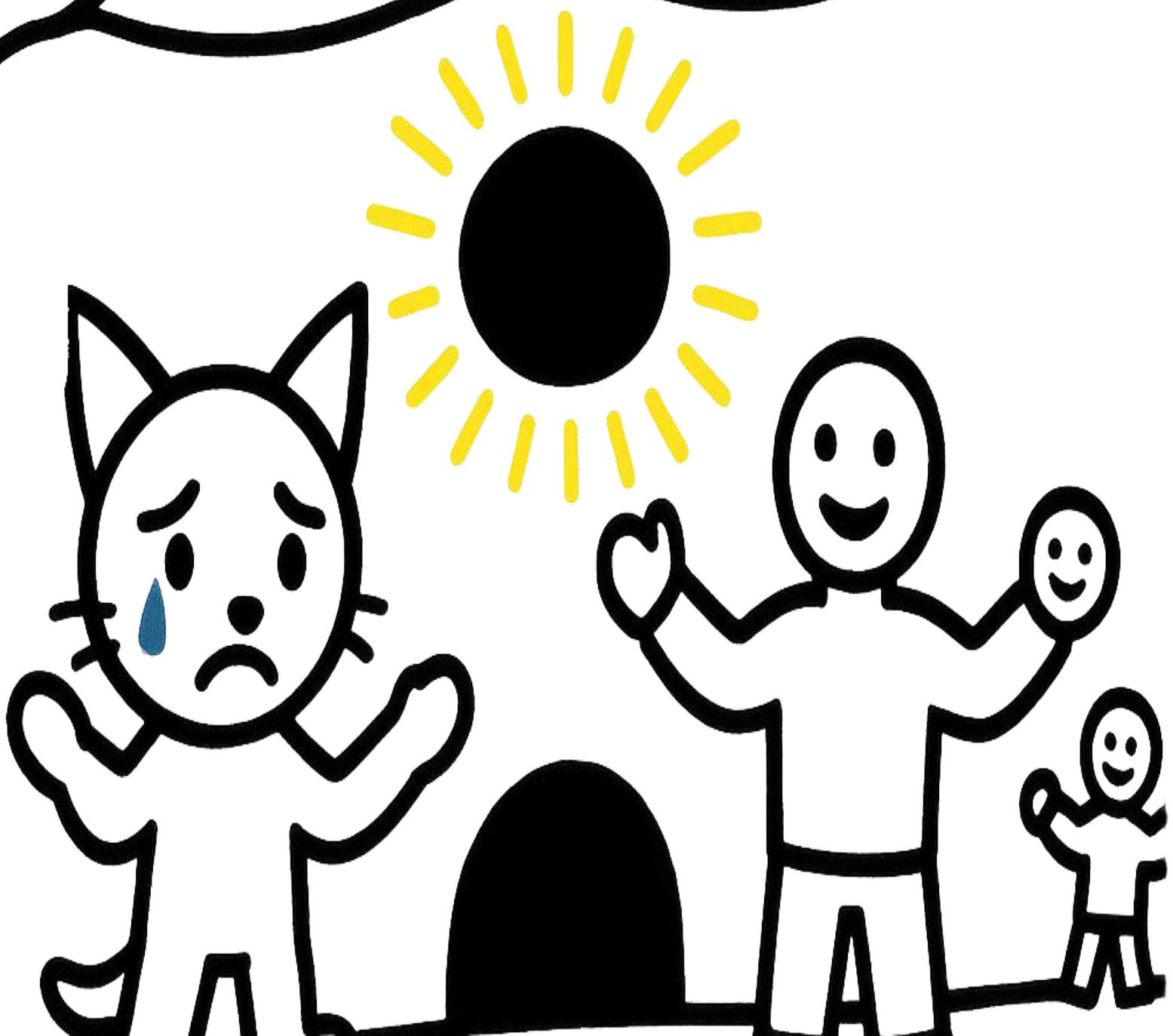


# 도깨비 광산의 비밀





"애들아, 우리 진짜 들어가 보는 거야?" 태백산속 폐광 입구 앞에서 우리 셋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깜깜한 터널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손전등 불빛 앞에 작은 도깨비가 울고 있었다.

"우리 마을의 보물 '별빛석탄'을 잃어버렸어. 그게 없으면 마을이 깜깜해져. 도와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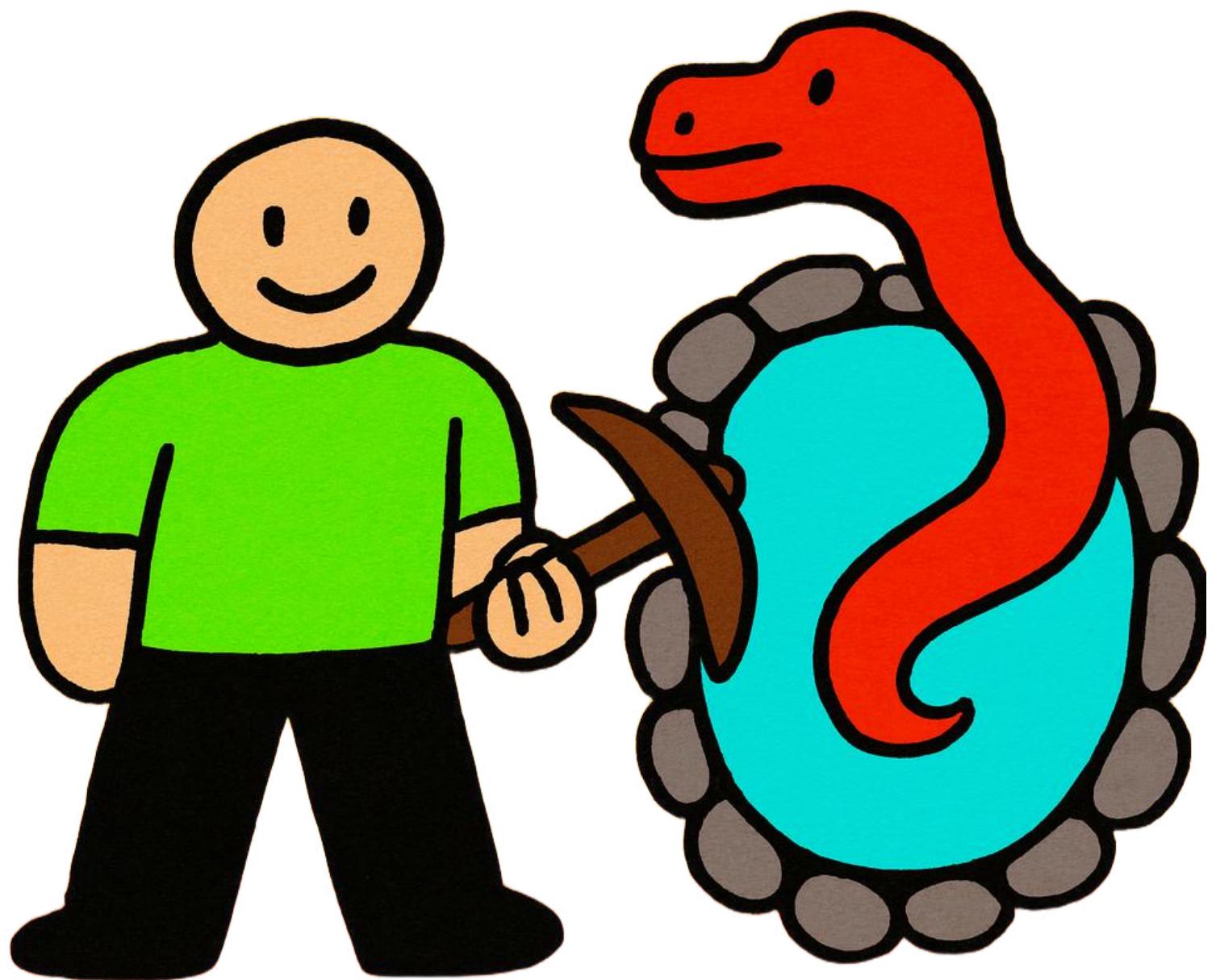
깊은 간도를  
헤매다 커다란  
바위 뒤에서  
드디어 찾았다!  
"별빛석탄이다!"  
도깨비와 우리는  
손을 들어 환호했다.



"이 돌을 주면 용기가  
필요할 때 마음이 강  
해질 거야."  
도깨비가 건넨  
작은 돌을 품고  
광산을 나오니,  
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향해  
반짝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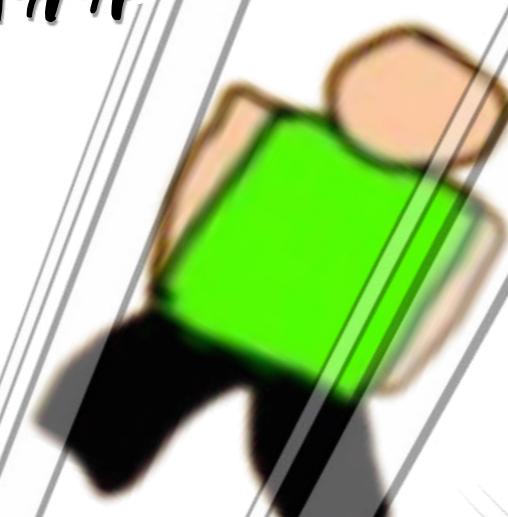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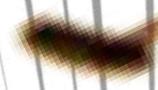
# 황지연못의 용왕님



"연못 속에는 용왕님이 살고 계셔."

황지연못 옆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니  
초록 눈동자가 나  
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연못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  
작은 용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연못 곳곳에 쓰레기가  
떠다녔다.**

세진이는 마을 사람들을에게  
이야기했고, 나는 친구들을 모아  
연못 주변을 청소했다.  
"우리가 꼭 개끗하게  
만들 거야!"



며칠 뒤 연못 한가운데에서  
물보라가 일더니 커다란 용왕  
님이 나타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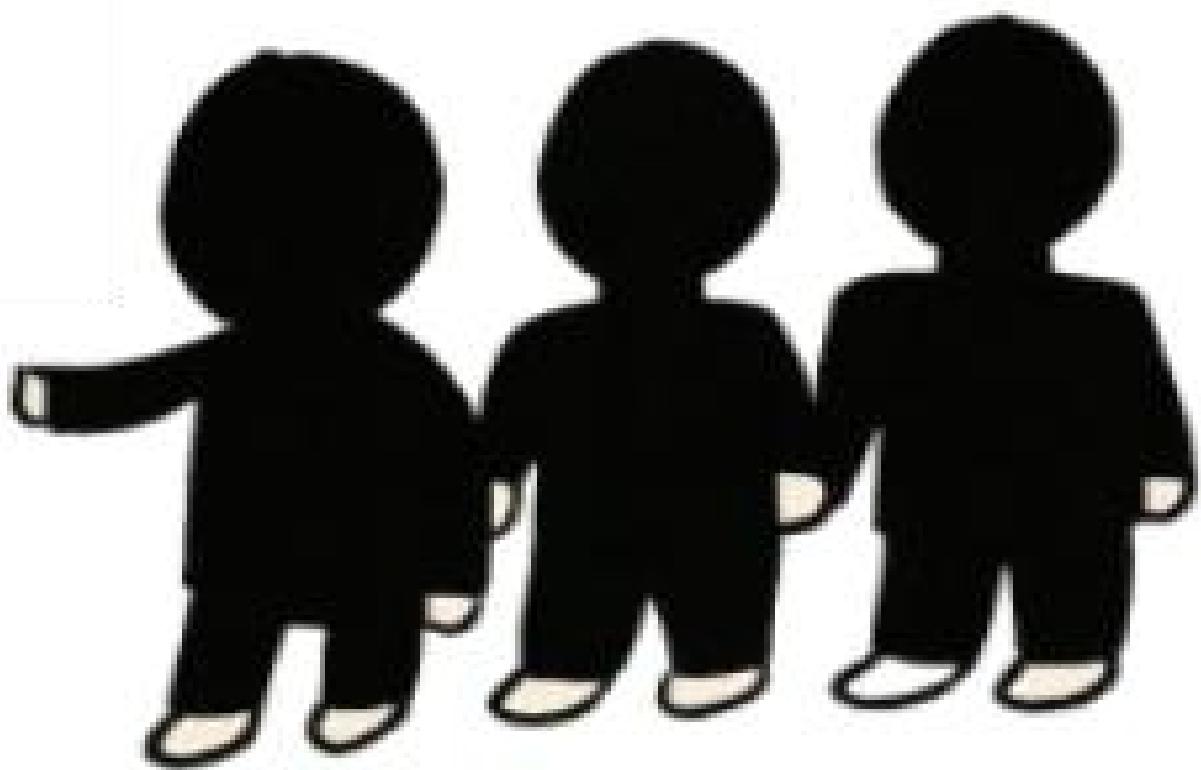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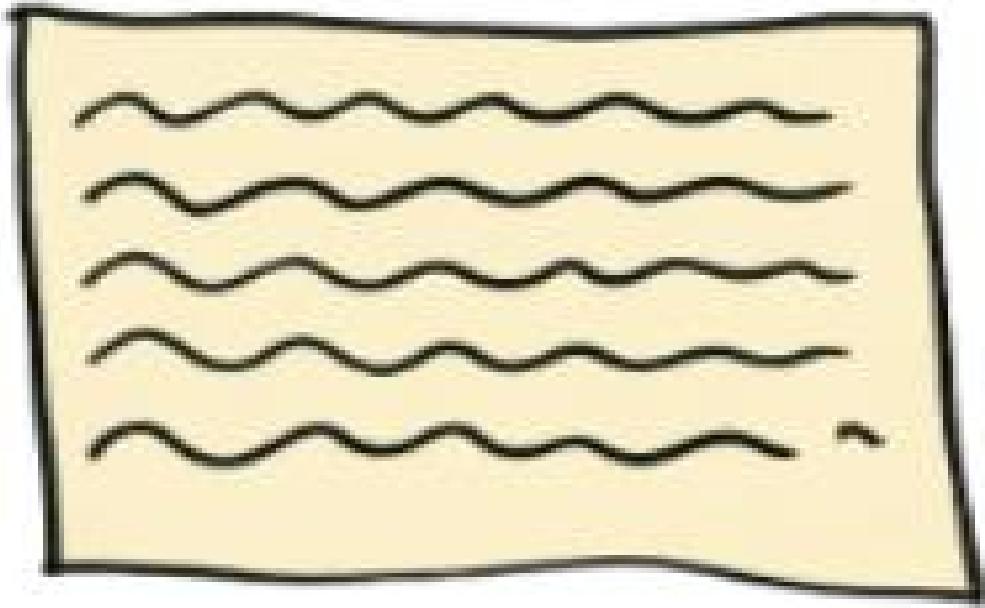


"너희 덕분에  
황지연못이 살아났구나.  
참 고맙다."

# 산소도시

# 비밀 우체국





다같이 친하게  
지내자

숲속에서 빨간 우체통을 발견했다.  
"산소도시 비밀 우체국 - 너의 마음  
을 전해 드려요." 이게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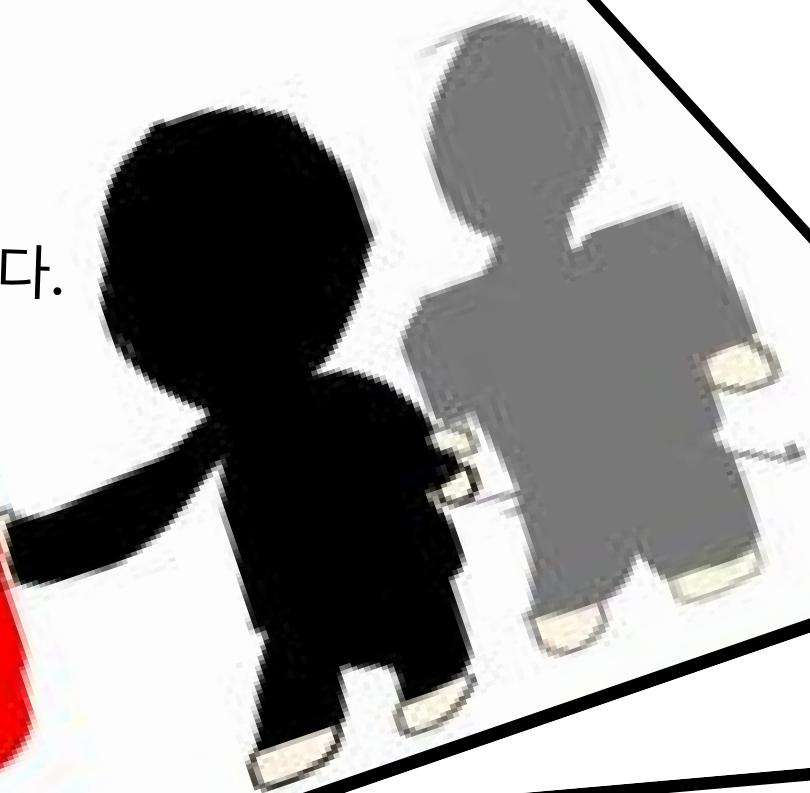


집에 와서 설레는 마음  
으로 편지를 썼다.  
"안녕, 나는 민재야.  
태백에 이사 온 지  
한 달 됐어.  
친구가 한 명도 없어.  
나랑 놀아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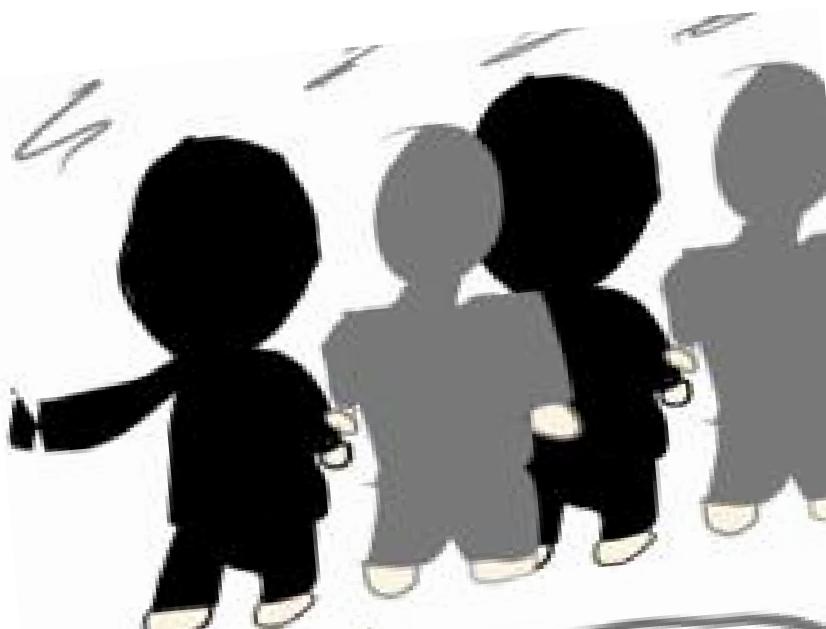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정말  
답장이 올까?

다음 날 놀랍게도  
답장이 와 있었다!  
"나도 네 반에 있는  
하윤이야."  
우리는 만나서  
비밀 우체국에  
계속 편지를 썼다.



우리의 편지를 읽은 다  
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함께했다. 어느새 반 친  
구들 모두가 친해졌고,  
학교는 웃음소리로 가  
득했다.



다같이 친하게  
지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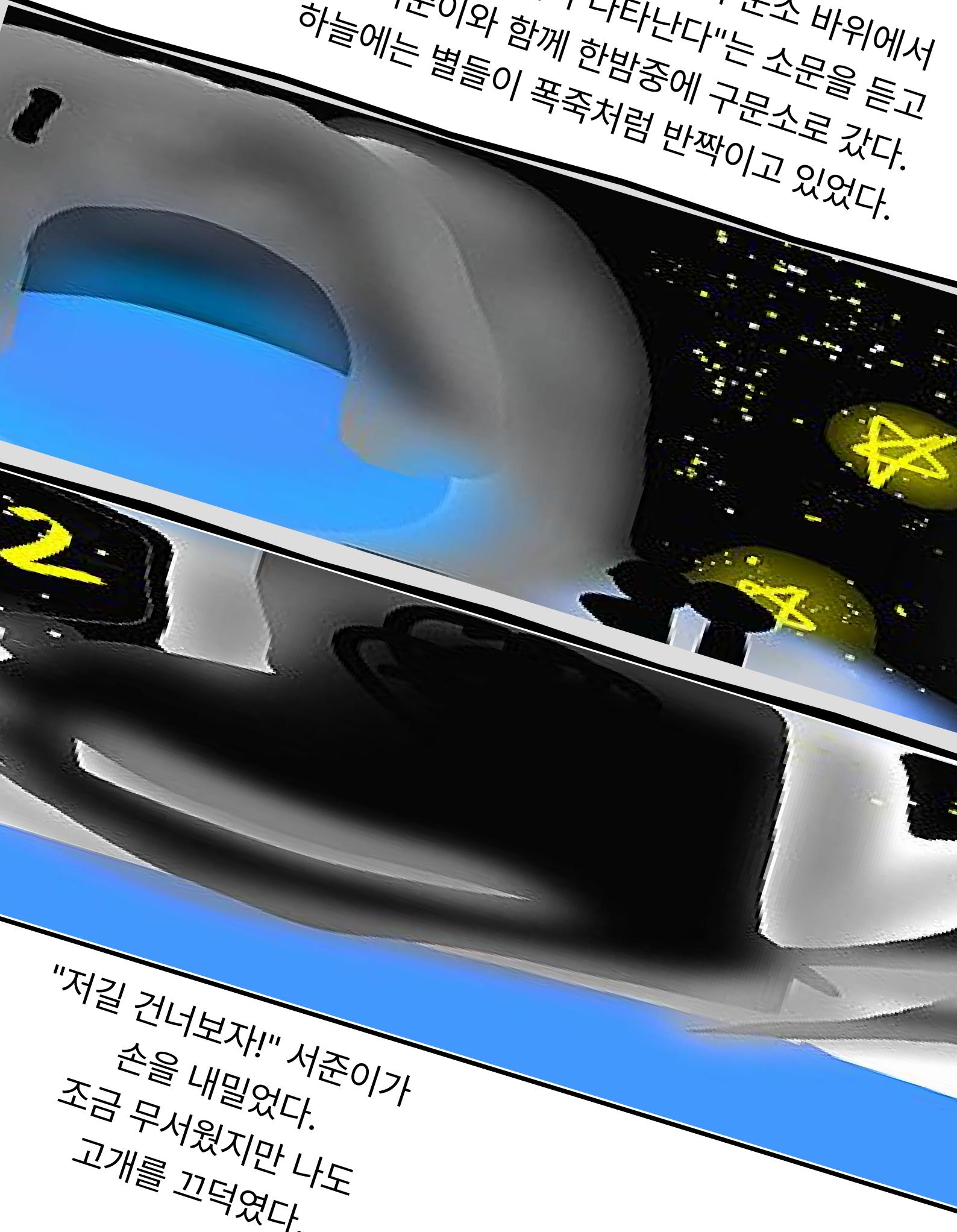
구운소

별빛 다리





"구문소 바위에서  
별빛 다리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서준이와 함께 한밤중에 구문소로 갔다.  
하늘에는 별들이 폭죽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길 건너보자!" 서준이가  
손을 내밀었다.  
조금 무서웠지만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발을 내딛자  
몸이 공중에 놓 떠올랐다.  
정말로 별빛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3

4

별들이 우리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속삭였다. "별빛을 잊지 마  
네가 별을 사랑할수록,  
세상은 더 밝아질  
거야."

# 바람꽃을 찾는 소년





나는 발표를 잘 못한다.  
"태백 깊은 산속에만  
피는 바람꽃을 찾아오  
면 상을 받을 수  
있단다."  
선생님 말씀에  
나는 용기를 내어  
바람꽃을 찾기로 했다.



세아와 함께  
높은 산을  
올랐다..

바람이 세게 불고 비까지 쏟아졌지  
만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로 돌아와  
바람꽃을 보여주  
며 발표했다.  
처음엔 떨렸지만 목소  
리가 점점 커졌다.  
친구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깨달았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끝내 작은  
동굴 속에서  
반짝이는 흰색 바람꽃을 발견  
했다! 꽃잎이 바람결에 흔들릴 때마다  
“할 수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한국 솔루션

ДЕНЬ ГОДА!

할아버지는  
태백에서 40년  
넘게 광부로 일하셨다.  
이 곡괭이는 보통 곡괭이가  
아니란다.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 보물을  
찾는 힘을 준다고 하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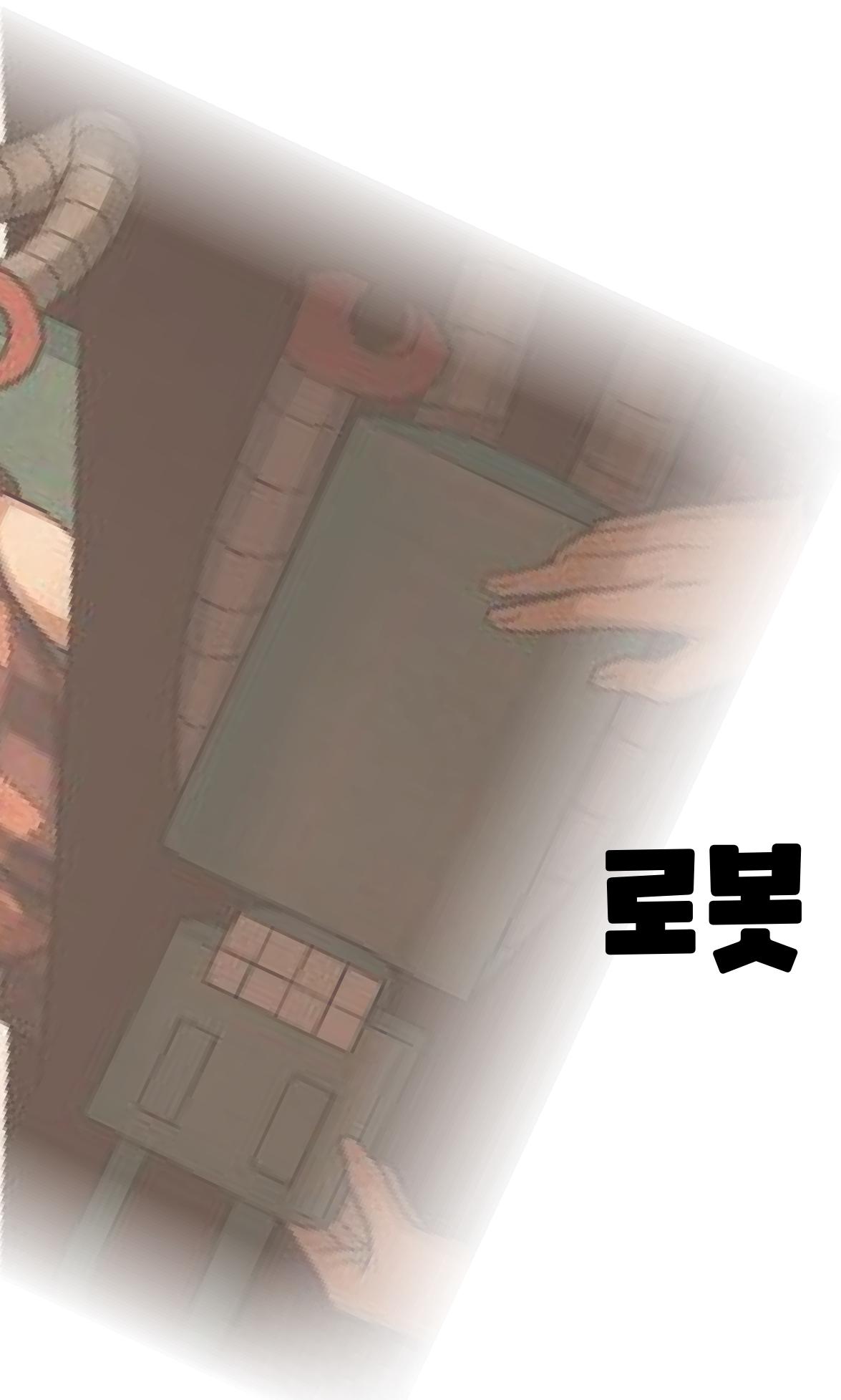
지난주 창고에서  
곡괭이를 발견했다  
그 곡괭이를 순간 희미한 빛이  
손으로 잡는 순간 희미한 빛이  
번쩍하더니 목소리가 들렸다. "  
네가 원하는 걸 말해 보렴."

“할아버지가 훨씬 더 이상  
허리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늘째 끔속에서 깊은 광산의  
뜰들이 무지개빛으로 빛났고  
할아버지가  
오고 계셨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훨쩍 웃으니  
셨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더구나.  
“나는 고향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정말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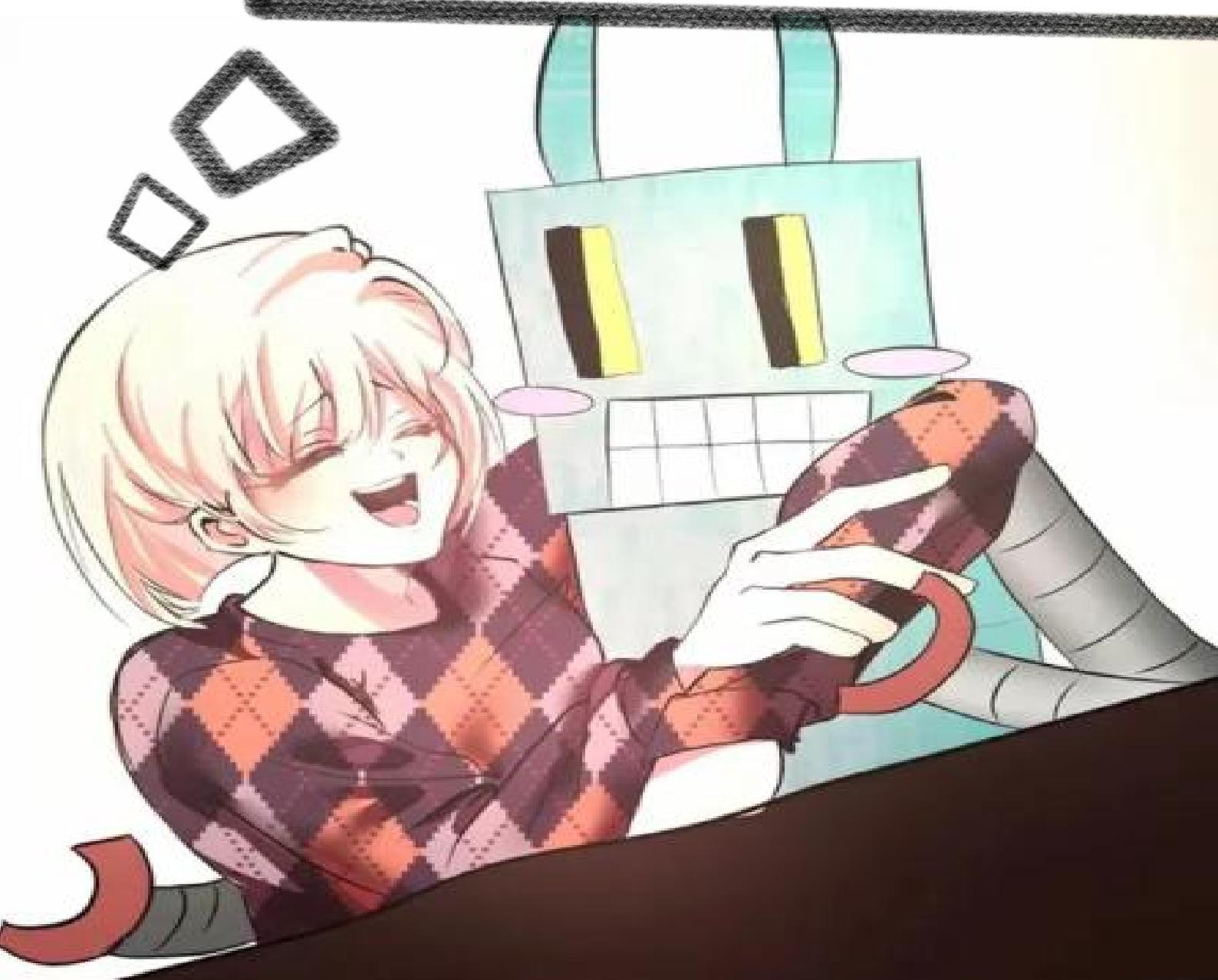
폐광 속





**로봇 친구**

폐광 속 낡은 창고에서 오래된 로봇  
"코봇"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버튼을  
누르자 "비익... 시스템 재가동."  
코봇은 천천히 눈을 뜨고 내게 손을 내밀  
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친구처럼 지냈다.



어느 날 코봇의 전원이 꺼져 버렸다.

"고마워, 너와 보낸 시간... 행복했어."

그 말과 함께 코봇은 깊은 잠에 들었다.

나는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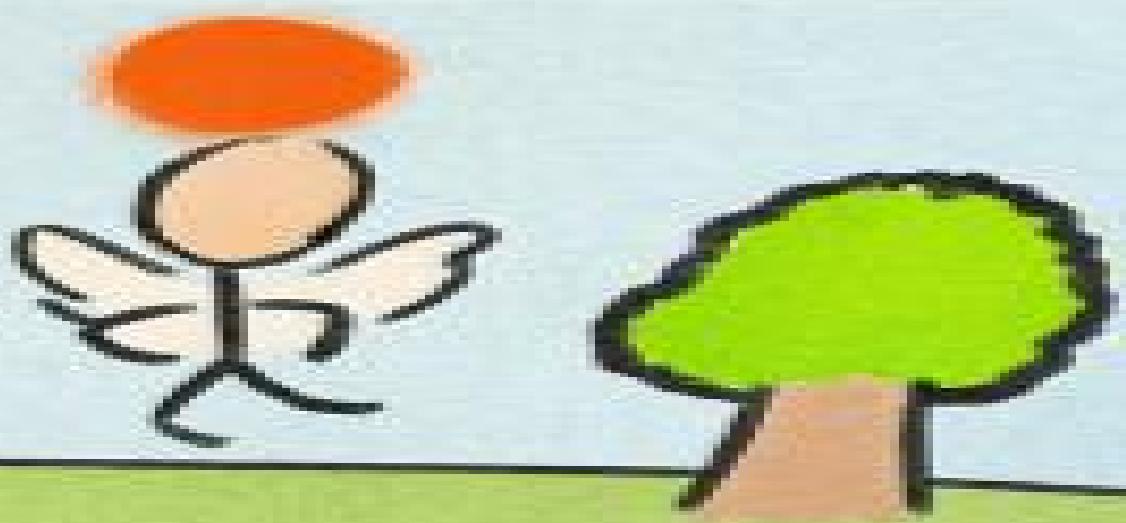
"언젠가 내가 널 꼭 다시  
깨울게."



# 태백의



# 바람 요정들



여기 전부터  
우리 마을 공기가 이상해졌다.  
바람이 멍한 속 나무들이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친구들과  
원인을 찾기로 하고  
산을 올랐다. 햇빛 사이로  
반짝이는 작은 불빛들이 보였다.  
"도와줘... 우리 바람이 갇혀 있어."

맑은 바람은 관리하는 바람의  
주호자였다. 우리는 함께 즐거웠다.  
지우고, (우) 세우고, 헤어졌다.

마지막 날,

요정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을 날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고마워. 덕분에 바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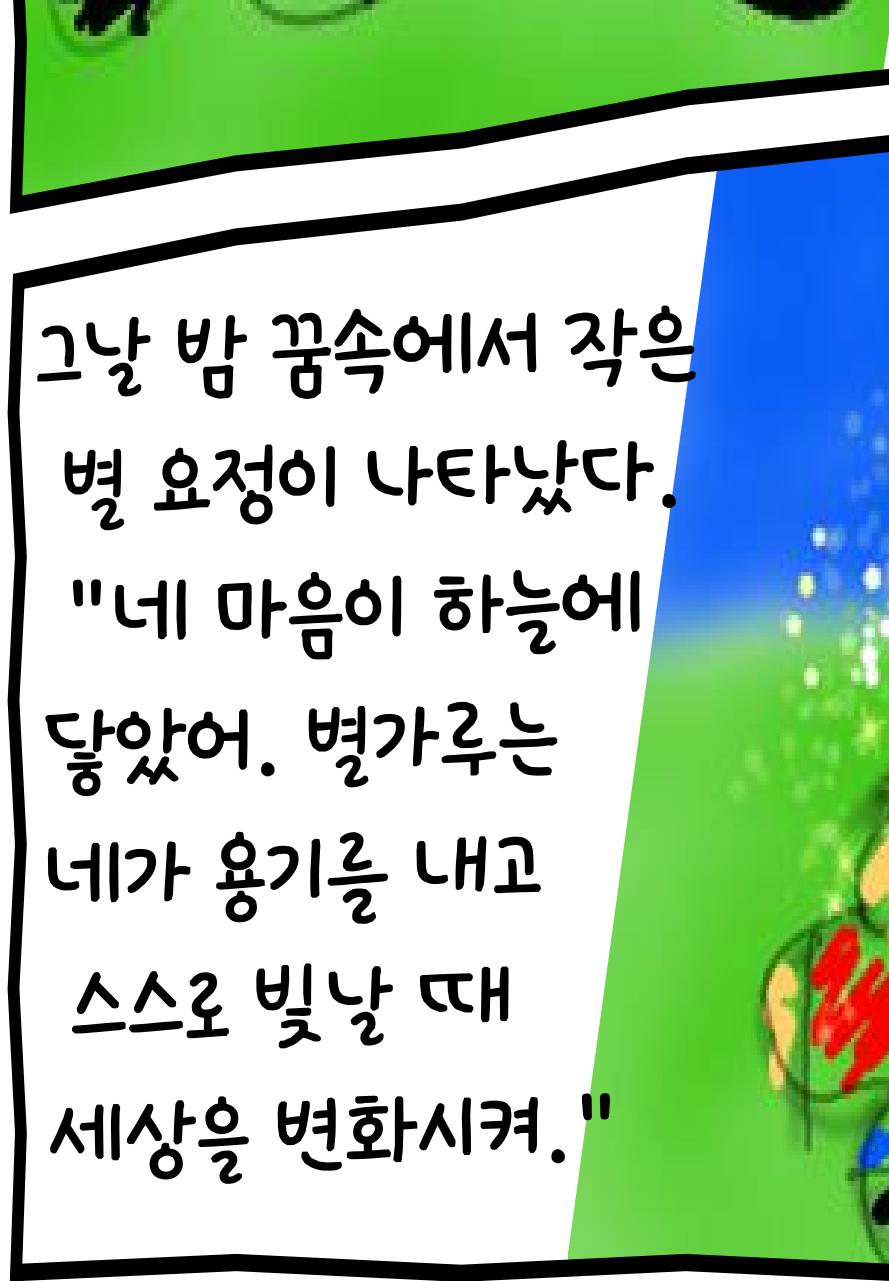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엄마가 아프신 날,  
나는 풀밭에 홀로  
앉아 걱정 스러운  
마음을 달랬다.  
그때 땅바닥에서  
반짝이는 가루를  
발견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작은  
별 요정이 나타났다.  
"네 마음이 하늘에  
닿았어. 별가루는  
네가 용기를 내고  
스스로 빛날 때  
세상을 변화시켜."



다음 날 하늘이 평소 보다 맑아 보였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 " 별가루 때 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속 작은 변화를 별이 알아챈 걸까?



며칠 뒤 친구들에게 별가루를 나눠주며 말했다. "소원을 빌어 봐. 하지만 진짜 별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 눈꽃마을의 겨울축제



# 태백산 눈축제



태백의 겨울, 눈이 오지 않아 눈꽃 축제가

최소될 위기였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며 간절히 기다렸다.

축제 전날, 낮잠처럼 하얀 눈이 내렸다.

눈꽃 축제를 지킨 건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었다.

# 석탄 냄새 나는 마을의 시간 여행





태백 밖을 봄에서 이상한 시계를 발견해 돌렸

더니, 두 깅짝할 사이에 옛 태백 마을로 시

간 여행을 떠났다. 냉복 형들과 석탄을 나르

며 하루를 보냈고, 그들이 건넨 경운 석탄 돌

을 솔에 주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상장이

야. 우리가 윗단 얼굴을 기억해 주."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지금의 태백이 있기가

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캐고 웃음을

나누며 살아았는지를.

# 도깨비와 별빛드론





과학 시간에 만든 드론으로 산속을 찍다가 이상한 그림

자를 발견했다. 다음 날 그곳에 가보니 정말로 도깨비들의

비밀 마을이 있었다. "우리 비밀을 지켜줄래? 대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보여줄게." 도깨비들이 하늘을 향해 별

빛 폭죽을 쏘아 올렸다. 수천 개의 별들이 밤하늘에 쓸어

졌다. 우리는 그 장면을 찍지 않고 마음 속 비밀로만 남겨두

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SANARAEHAKDANG